



시민공론화위원회_5차

✓ **보도일시**

2020. 7. 9.(목) 조간용

<배포 후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>

위 원 장		이 양 재 (☎ 010-5029-5455)
간 사		이 정 현 (☎ 010-3689-4342)
시민의숲1963추진단장		김 문 기 (☎ 063-281-5033)
총 매 수	2매	
사 진	유 ☐ 무 ☒	영 상 유 ☐ 무 ☒

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다양한 분야 전문가 · 시민 의견 수렴한다!

- 시민공론화위원회, 제5차 회의를 열어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 논의
- 정책 · 도시관리, 도시계획, 지역경제, 시민 4개 그룹으로 재설정 · 총 30명 참여

-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.
-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(위원장 이양재, 이하 위원회)는 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나리오워크숍의 참여자 구성을 위한 그룹을 재정비하고, 각 그룹별 분야를 구체화한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. 시나리오워크숍은 특정 사안별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해 장 · 단점을 토론했던 후 적합한 대안을 모아 미래를 예측하는 공론화 방식이다.
-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향후 진행될 시나리오워크숍에 △정책 · 도시관리 △도시계획 △지역경제 △시민의 4개 그룹에 각각 6~8명씩 총 30여명이 참여토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.
- 먼저 정책 · 도시관리 그룹은 행정, 의회, 전주시 거버넌스 조직 위원 등이 참여하고, 도시계획 그룹에는 도시개발, 교통, 경관,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. 또, 지역경제 그룹에는 소상공인, 상공회의소, 상공계 관계자가 참여하고, 시민 그룹에는 인근 · 주변지역 주민, 시민단체, 주민자치협의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.
- 이어 위원회는 시나리오워크숍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여

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.

- 다음 회의는 시민공론화위원회 위원 전체 합의에 따라 7월 16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하며, 공론화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에게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.
- 이양재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장은 “정책·도시관리, 도시계획, 지역경제, 시민 각 분야를 대표하여 보다 현명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겠다”면서 “선정된 참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로 모아질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나리오워크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- 한편 토지소유자인 (주)자광은 2018년 11월 전주시에 일부 도유지와 시유지를 포함한 총 23만565㎡부지에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, 43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, 호텔,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해왔지만 시는 이 제안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‘수용불가’ 입장을 회신한 바 있다.